



상반기 해외 M&A 건수 22년 만에 최대치 기록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상반기 일본의 해외기업 M&A 건수는 262건으로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, 금액은 3조 4,904억 엔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임.¹⁾

- 지난해부터 지속된 엔고 현상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해외 M&A 권장, 일본 기업의 풍부한 내부유보 자금과 인수대상 기업의 주가 하락 등이 M&A 증가의 원인임.
 -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가 하락하며 매입 대상 기업의 시장가치가 낮아졌음.
- 대기업 무역상사들이 대형 M&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.
 - 스미토모 상사 컨소시엄이 스코틀랜드왕립은행(RBS)의 항공기 임대 사업을 약 5,500억 엔에 인수하였고, 마루베니(丸紅) 상사는 미국 곡물 상사인 가비론을 약 2,800억 엔에 인수하였음.
 - 이 외에도 미쓰비시(三菱) 상사는 캐나다의 천연가스 개발 관련 업체의 지분을 2,300억 엔에 인수하기로 함.

■ 한편, 올해 상반기 M&A 가운데 10억 엔 미만의 소규모 거래 비중이 40%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.

- 중견자동차 부품업체인 타이호공업은 중국 최대 알루미늄 베어링 회사를 인수하였고, 주부약품은 중국 약국 체인에 자본을 투자하였음.
 - 최근에는 재팬타바코(JTI)가 벨기에 담배 제조업체인 그리슨NV에게 6억 달러 인수를 제의했으며, 다케다제약(タケダ)은 브라질 제약업체를 2억 4,6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힘.
 - 이에 반해 일부 하청업체들은 거래 기업의 해외진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.

1) 2006년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M&A 금액은 4조 4,681억 엔을 기록함.

-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는 일본 정부의 해외기업 M&A 자금 지원과 해외 현지기업 조사·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이 M&A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함.
- 일본무역진흥기구는 일본의 국제협력은행(HBIC)을 통해 1,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본 기업의 해외기업 M&A 자금을 저리로 제공하고 있음.

(니혼게이자이 외, 7/4)